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 서둘러야”

수질기준치 초과 저수지 현황 자료 전국 오염저수지 작년비 74% ↑ 도내 4등급 초과 38곳 달해 10년간 유지비 622억원 투입 농어촌공사 “기후 변화 주 원인” 김철민의원 “오염원 관리” 촉구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오염도가 급속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질개선사업은 더디기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어촌공사가 농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수질기준치 초

과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수지 수질 관리목표인 호소수질 4등급(TOC 6mg/L 이하)을 초과하는 수질악화 저수지는 576개소(전체의 17.2%)로 전년도 330개소(9.9%)에 비해 무려 7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질이 악화된 전국의 저수지 현황은 연도별로 ▲257개소(2013년) ▲358개소(2014년) ▲330개소(2015년) ▲576개소(2016년)로 급증 추세에 있다. 지난해 4등급 576개소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이 35.1%에 해당하는 202개소 ▲경북 181개소 ▲충남 51개소 ▲경남 47개소 ▲전북 38개소 ▲경기 18개소 ▲충북 10개소 ▲제주 1개소 등이었다. 결국, 농업용수 수질오염 증가 추세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사업과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7월까지 622억2,80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막대한 수질관리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저수지의 수질악화는 계속되고 있는 반면, 오염물질 집감지, 인공습지, 물순환장치, 인공식물섬 설치, 사후모니터링 실시 등 수질개선 사업이 준공된 곳은 2016년까지 22개 지구에 불과하다. 이에 농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 대책’ 수립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87지구를 대상으로 3,805억원을 투입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는 전국 농업용 저수

지의 수질악화 사유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강수량 부족, 저수지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 등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에서 설정한 목표인 2026년까지 65지구가 준공되고, 2,924억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2지구 준공 실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최소한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 평균 7지구 준공, 약 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속 투입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기온 상승과 강수량 탓만 하지 말고,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해 저수지 수질 관리를 오염원 관리에 민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황성조기자 · food2ink@



“김장 준비하세요” ...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 19일 서울 서초구 농업하니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절임배추를 선보이고 있다. 농업하니마트 주요 점포에서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18일간 절임배추를 사전예약 판매하며 최대 20% 할인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마을기업들 성장 지원 ‘견인’ 전북경진원,꾸러미상품사업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다수의 마을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꾸러미상품 유통사업을 통해 도내 마을기업의 자립성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 9월부터 유통된 마을기업 행복꾸러미는 도내 고도화사업을 통해 육성된 유통 마을기업으로서, (유)봉사사랑과 선유도관광진흥회에서 주력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마을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품생산 마을기업 10개소의 12개 제품을 선별해 밥상차림, 간식차림이라는 테마로 상품을 구성했으며,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유통형 포장박스 개발과 행복꾸러미 2종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설립된 (사)전라북도 마을기업 협의회도 마을기업 간 협업과 자체 관로확대를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자체관로 모색이 마을기업 자생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마련돼 벌써부터 후속사업에 대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제품 유통사업을 위해 전라북도도 전북경진원, 마을기업이 합심해 일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양승수기자 · syyang0117@

한눈에 보는 생활경제 TIP - 유통가세일 소식

가을의 중턱인 10월 셋째 주 주말, 도내 유통업체에서는 어떤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까. 한 번 살펴보자.

아웃도어 다운점퍼 특가전

롯데백화점 전주점 '아웃도어 다운점퍼 특가&에스콰이어 균일가전'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가을의 중턱인 10월 셋째 주 주말, 도내 유통업체에서는 어떤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까. 한 번 살펴보자.

아웃도어 다운점퍼 특가전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는 '아웃도어 다운점퍼 특가&에스콰이어 균일가전'이 진행된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아웃도어 다운점퍼를 특가에 구입할 수 있다. K2 구스 야상다운을 25만 9000원, 블랙야크 야상다운 점퍼 28만 9000원, 밀레 벤치코트 다운 19만 2000원, 빈폴아웃도어 도브드다운 점퍼를 20만 8800원에 판다. 에스콰이어 균일가전도 농치지 말자. 여성화를 8만 9000원, 남성화 9만 9000원, 앵클부츠 13만 9000원이다.

냉동 새우살 450g 1만360원

이마트 전주점에서는 '생활에 힘이 되는 추천상품'을 통해 세계 새우대전을 진행한다. 슈립프림(453g)을 행사카드를 이용하면 1만 3800원에서 1만 2420원까지 할인해 준다. 냉동 새우살(450g)을 30% 할인해 1만 4800원에서 1만 360원, 북쪽분홍새우(750g 내외) 9500원에서 6650원까지 싸게 판매한다. 하인즈 그라운드스/구갈리아이올리(500ml)를 각 6480원에서 3240원에 신세계 포인트를 이용하면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직접 만들어먹는 DIY초밥' 재료로 초밥용 생선회와 해남 히토메베레로 만든 cchajum을 9900원에, 네이블 오렌지(12~19인) 9980원, 오투기 컵밥/진짬뽕 10종을 각각 1980원, 4980원에 판다. 해피바스 어

제주 흑돼지 삼겹살 2만6000원

롯데마트에서는 '가을캠핑X제추먹거리' 행사를 통해 제주 올레도새끼(냉장) 흑돼지 삼겹살/ 구이용(400g)을 2만 6000원, 제주 무항생제 닭(냉장) 가슴살(500g*2팩)은 2만 1400원에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한 선택 GAP' 행사로 GAP 하우스 감귤(1kg/팩) 8900원, 초이스엘 GAP 참쌀(800g) 6800원, GAP 사과(4~6입) 엘 포인트를 이용하면 기존가 6900원에서 5900원까지 할인해 준다. 뿌리소살 새우이 버섯(300g*2) 2780원이다. '대게, 흥게'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북방한계선 조업 흥게 일일형(3kg) 1만 5900원, 레드클로우스 자연산 러시아 대게(700g) 3만 3900원, 북방한계선 조업 흥게 프리미엄형(3kg)은 3만 7900원이다.

'할로윈 축제' 크런키 등 할인

홈플러스에서는 '할로윈 대축제'를 연다. 로이커가테나링거말신(375g) 6900원, 로이커소콜라미니스(3입) 5900원, 오스카 헬초코렛어쏘티드(813g)은 9900원, 롯데 ABC초코렛(200g)은 2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 미니 크런키(187g)는 2900원, 코노스내초코렛(10입) 5900원, 롯데 리세서믹스할로윈(470g)은 9900원, 마쉬멜로우어쏘티드(600g) 9900원, 오토미_망고구미(500g) 5900원에 살 수 있다. /박세린기자 · iceblue@

기업현장 애로사항 신속 해결 '맞손'

중기증전북본부-전북중기청 소기업 공공관로 확대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강우용)는 19일 전북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광재 신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초청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소기업 공공관로 수주기회 확대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공적거래법 적용 배제 ▲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요건 완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지원 확대 협

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방안 강구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 지원 ▲최저임금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임선명 전북지역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전북중기청이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기업현장의 애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전북중기청에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동업업종간 또는 이업종간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통한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지원정책의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수기자 · syyang0117@

은행, 중소기업 대출 '꺾기' 관행 여전

김해영 의원, 최근 3년 거래분석 60만건 · 28조 7000억원 규모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중소기업에 우월 지위 악용 금융당국 철저히 감시 요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16개 주요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건수는 총 60만 건, 28조 7000억 원 규모다. 16개 주요은행은, 농협, 중소기업, 수협, 경남, 신한, 제주, 우리, 산업, 전북, 국민, 하나, 부산, SC제일, 씨티, 광주 대우은행 등이다.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은행의 '여성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므로 한 달 간의 금지 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 거래(일명 '꺾기')로 의심하는 것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2015년 2분기 약 6만 2000건에서 지난해 2분기 약 6만 7000건으로 5038건(8%) 증가했고, 금액은 약 2조 9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약 5000억 원(18%) 감소했다. 반면, 올해 2분기에는 약 4만 8000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 8459건(28%) 감소했지만, 금액은 오히려 약 2조 4500억 원으로 500억 원(2%) 증가했다. 올해 1분기 3만 9000건에 비해서는 9481건(24%) 증가했고, 금액도 약 5600억 원(30%)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6개 은행의 대출 취급금액은 2015년 2분기 약 97조 원에서 지난해 2분기 약 80조 원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2분기 약 82조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

이에 자금 조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뜰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린기자 · iceblue@

보험사기 적발 금액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상반기 실적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총 4만 4141명으로 전년동기비 10.2%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 원으로 교역와 추세다.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 사고 유형이 2786억 원(75.2%)로 대부분이었고, 살인·자살·방화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2.1% 수준이었다. 손해보험 종류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1%를 차지했고, 생명보험 종류는 9.9%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 전체 보험사기의 44.4%까지 줄었다. /박세린기자 · iceblue@

국민연금공단, 삼성합병 손해배상 소송 추진해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의원은 19일 전주혁신도시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부당하게 판결권을 행사해 찬성함으로써 국민의 생계자금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흥원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과 그 손해 만큼의 이익은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표주가 얻은 것이라고 인정할 점 등을 소송 사유로 들었다. 천정배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

물을 원격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금화 취수문에는 울 11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황성조기자 · food2ink@ /편집=백지숙기자 · bjs02@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금화 취수문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설치

하고 18일 밝혔다.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은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중앙제어실에서 양배수장, 저수지,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

오늘 여성경제인협 전북지회 '여성경영인 육성 리더십스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영자)는 20일 오후 4시 르윈호텔(백제홀)에서 도내여성CEO를 대상으로 여성경영인 육성 리더십스쿨을 개최한다. 전북지회 여성CEO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여성기업의 경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박영자 회장은 "이번 리더십스쿨은 입찰실무교육 심화과정으로 입찰의 이해, 수행능력평가 등 입찰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과 분석 방법을 교육한다"고 말했다. /양승수기자 · syyang0117@